

KCCI 브리프\_ESG\_제38호

# KCCI ESG NEWSLETTER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JUN. 2024

### 전문가 기고

MZ세대, ESG경영을 접수하다

### ESG 주요 현안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 전문가 기고

# MZ세대, ESG경영을 접수하다

###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 부문장

“경영진, 직원, 소비자가 MZ세대로 바뀌면서 ESG는 경영의 상식으로 자리를 빠르게 굳혀가는 느낌이다.”

ESG경영이 대세라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많다. 추구하는 방향은 십분 동의하지만 이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하루하루 생존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적이면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고,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요구일 수 있다. 누적된 오랜 관습과 시스템을 바꾸는데는 비용이 든다. 자칫 사회적 요구에 밀려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이다가 되레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른바 ‘ESG위성’ 논란이다.

하지만 ESG경영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한국기업들이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진, 직원, 소비자가 MZ세대로 바뀌면서 ESG는 경영의 상식으로 자리를 빠르게 굳혀가는 느낌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세상에서 자라난 MZ세대는 앞선 세대와 달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ESG경영에 대해 MZ세대들은 당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최근 만난 2030 MZ 스타트업 대표들은 ESG경영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워 보였다. A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사회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돈을 번다면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모교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 B스타트업 대표는 “사내에 종이 컵을 모두 치우고 휴대용 개인 보틀을 들고다니도록 했다”며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한 직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C 스타트업 대표는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한다면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이사회 멤버로 남고 싶다”며 “다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VC로서의 역할도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MZ세대 직원들도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2019년도 연례서한에서 “MZ세대 직원 중 63% 이상은 기업의 주요 목적을 더 이상 이윤창출이 아닌 사회 개선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MZ세대는 기업의 존재이유로 수익창출 이외 사회적 가치와 명분도 중요시 한다는 얘기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기업이 소모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MZ세대 노조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MZ세대 소비자의 변화는 더 적극적이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MZ세대가 바라보는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중 64.5%가 ‘ESG를 실천하는 착한기업이라면 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MZ세대에서는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행위인 ‘가심비’(價心費), 착한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해 흔내주는 ‘돈쫄’, 모범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운동인 ‘바이콧’ 등이 신조어로 즐겨 쓰인다.

MZ세대 소비자는 글로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MZ세대 소비자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 더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들은 ESG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바야흐로 MZ세대가 ESG경영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ISSB가 S3와 S4 공시기준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인적자본 공시 등을 새로운 공시 주제로 제안하면서, 글로벌 인적자본 고잇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 ISSB 공시기준 현황

### 1-1. ISSB의 설립 배경과 주요 목적

ISSB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약자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정보를 일관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1-2. ISSB의 주요 기준: IFRS S1과 S2

ISSB는 2023년 6월, 전 세계 ESG 정보공시의 표준을 제시하는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ISSB 공시기준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으로 나뉜다. 그리고 ISSB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2년간 'S3', 'S4' 등으로 불릴 추가적인 공시기준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ISSB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를 거쳐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인적자본공시 등을 추가적인 공시기준 제정 작업의 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ESG공시와 재무공시의 통합 문제도 연구 과제로 정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ESG 활동이 금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SSB가 S3와 S4 공시기준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인적자본 공시 등을 새로운 공시 주제로 제안하면서, 글로벌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업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인적자본 공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ISSB의 새로운 기준 제안으로, 인적자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인적자본공시에 대한 현황과 중요성,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글로벌 인적자본공시의 현황과 중요성

### 2-1. 인적자본공시의 중요성

오늘날 기업의 재무적 가치는 점점 더 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인해 결정되고 있으며, 무형자산 중에서도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의 경제에서 인적 자본은 단순히 비용이 아닌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직원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인적자본 공시는 기업이 자신의 인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 2-2. 글로벌 인적자본 공시 동향

유럽연합(EU)은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FRD)을 통해 대규모 기업들에게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업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EU는 최근에 이 지침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인적자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Regulation S-K의 개정을 통해 상장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공시를 요구했다. SEC는 기업들이 인력 구조, 노동력의 안정성, 인재 개발 정책, 다양성 및 포용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및 조직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적자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성장전략 점검'을 통해 인적자본 경영과 정보 공시가 총리 직할 안건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해, 내각부는 '인적자본 가시화 지침'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표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022년에는 32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적자본 컨소시엄이 설립되어 2023년부터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경영에 인적자본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를 통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2-3. 국내의 인적자본 공시 동향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본 공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본 공시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부터 인적자본을 포함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직원들의 근로 조건, 교육 및 개발 기회, 다양성 및 포용성과 같은 인적자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공시 의무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상황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다만 현재 한국 기업들은 자발적 기준에 따라 일부 인적자본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는 직원 수, 이직률, 교육 및 훈련 투자, 직원 만족도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이러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서 기업 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고, 인재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하고, 전체적인 기업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 3. 글로벌 인적자본공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 3-1. 글로벌 인적자본공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준비

- 1) 전략적 인적자본 관리 계획 수립 : 기업은 먼저 자체적으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조직의 비전과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 및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육성, 리더십 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등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기업은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은 인적자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인적자본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완전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데이터 관리는 인적자본의 각종 지표(예: 직원 만족도, 교육 투자 ROI, 이직률 등)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인적자본 리스크 관리 : 기업은 인적자본 리스크 관리 기업은 인적자본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급 인재의 이탈 리스크,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부족, 노사 관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 및 실행해야 한다.
- 4) 투명한 인적자본 : 공시 기업은 투명한 인적자본 공시 기업은 인적자본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인적자본 관리 및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공시 내용에는 인력 구성, 교육 및 개발 투자,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3-2. 글로벌 인적자본 공시와 관련된 국제적 표준

앞서 말했듯 글로벌 인적자본 공시와 관련된 국제적 표준으로 ISSB는 아직 S3와 S4 표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 인적자본공시는 ISSB가 S3, S4를 예고하면서 하나의 주제로서 언급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은 ISSB의 S3, S4 발표에 따라 그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ISO 30414를 활용한다면, ISSB의 공시기준을 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ISO 30414는 기업들이 인적자본 정보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춰 인적자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ISO 30414는 교육 비용, 직원 만족도, 다양성 및 포용성, 이직률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투자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ESG 주요 현안

#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ISO 3041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으로, 기업이 인적자원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돕는다. 이 표준은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및 성과를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ISO 30414는 규범준수 및 윤리, 다양성, 리더십 개발, 작업장 건강 및 안전, 교육 및 개발, 인적자본 ROI 등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ISO 30414를 통해 기업은 인적자본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그리고 공개할 때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ISSB의 S3, S4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ISO 30414 11가지 핵심 영역



#### 4. 마치며: 글로벌 인적자본 공시의 의미와 전망

인적자본 공시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서 기업의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아직까지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ISSB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ISO 30414와 같은 국제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향후 많은 기업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분야 및 근로자 권리 분야에 대해 더욱 주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그리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E

### 환경



**막 오른 AI시대... '전기 먹는 하마' 오명 넘어 ESG 시대 정착할까**

비즈팩트 | 2024.05.16. <https://news.tf.co.kr/read/economy/2098911.htm>

**기업들의 '모두 함께' ESG 경영 실천, 속도 올린다**

FETV | 2024.05.17.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65593>

**배출권거래와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도... "배출량 5~21% 감축" 확인**

ESG경제 | 2024.05.1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8>

**건설업계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매진,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의무화 대응 대비**

비즈니스포스트 | 2024.05.2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873](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873)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지원 필요"**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4.05.21.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74>

**기술 특허에도 녹색 바람 분다**

국토일보 | 2024.05.22.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4317>

**"텀블러 세척까지 해주네"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 나선 정부·업계**

이넷뉴스 | 2024.05.27.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63>

**철강 '탄소 중립'에 수십조원 투자 필요한데...**

한경ESG | 2024.05.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456861>

**한국의 철강 산업, 저탄소 시대에도 높은 경쟁력 유지할까**

이코노미조선 | 2024.06.10.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5/31/2024053100017.html](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5/31/2024053100017.html)

**금융권 ESG 향한 발걸음... 지속가능한 미래 만드는 원동력은**

더팩트 | 2024.06.10. <https://news.tf.co.kr/read/economy/2105030.htm>

**한국자산관리공사, 中企·사회적경제기업 ESG 확산 '걸음기부 캠페인'... 도심 숲 조성**

한경ESG | 2024.05.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090161>

**"깜짝 커피차 보내고 가치 공유하고" ...편의점업계, 협력사와 상생경영 박차**

마이데일리 | 2024.05.24.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52410315161456>

**"밸류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의 돌파구" ... 금투협,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

ESG경제 | 2024.05.2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9>

**"동반성장=경쟁력"...정유·화학사, 협력사 챙기기 올인**

EBN 산업경제 | 2024.05.28. <https://www.ebn.co.kr/news/view/1624309/?sc=Naver>

**저출산 극복·양육환경 개선 힘쓰는 제약바이오**

쿠키뉴스 | 2024.06.07.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6050067>

**ESG 결의안 반대 증가... '안티 워크' 주주에 기업 '흔들'**

한성경제 | 2024.06.13.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173>

**[K-밸류업, ESG가 이끈다(上)] 건전한 지배구조 '기업가치 제고' 첫발...E·S 자리찾기 '과제'**

뉴스투데이 | 2024.05.16.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514500201>

**기업 이사회는 반(反)ESG 역풍에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포춘코리아 | 2024.05.22.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59>

**은행 이사회, IT·ESG·소비자·여성 전문가 '태부족'...경영진 견제 한계**

포춘코리아 | 2024.06.0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2054.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2054.html)

**韓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인수설' 탈피가 첫걸음**

한경ESG | 2024.04.15.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86>

**ESG 중 G, 보험사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

내일신문 | 2024.06.10. <https://www.naeil.com/news/read/512936?ref=naver>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 밸류업이 가능하다.**

녹색경제신문 | 2024.06.10.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89>

## S

### 사회



## G

### 지배구조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3.10	11월	12월	'24.1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268	276	278	279	280	278	279	289
사회적채권	1,394	1,440	1,463	1,474	1,502	1,531	1,526	1,554
지속가능채권	289	280	290	285	275	268	254	238

###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분	'23.10	11월	12월	'24.1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251	254	256	255	266	262	259	264
사회적채권	1,928	1,971	1,994	1,999	2,023	2,054	2,044	2,079
지속가능채권	207	201	203	199	186	184	177	171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5.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8

###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5.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2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5)

\* CF100 참여 기업 수: 155개 ('24.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2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b>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b>
7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최종안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